
MWC 2018, 5G의 현재와 미래

2018. 0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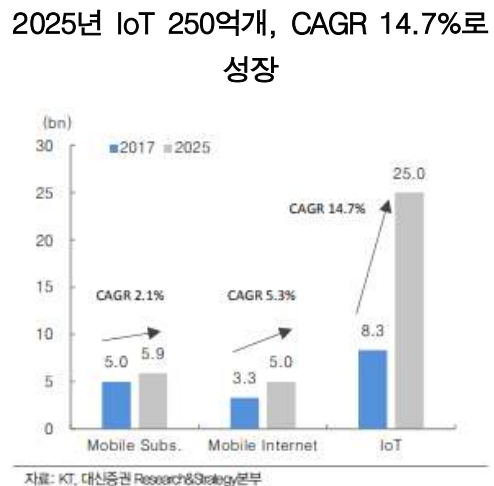
MWC 2018, 5G의 현재와 미래

□ MWC란?

-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Mobile World Congress)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주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산업 박람회
- 소비자가전전시회(CES), 국제가전박람회(IFA)와 함께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ICT) 행사로, MWC는 통신과 휴대폰에 중점
- MWC 2017은 “Mobile. The Next Element”(모바일 그 다음 요소)를 주제로 잡으면서 5G와 IoT 같은 새로운 트렌드의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면, MWC 2018에서는 모바일 기술의 가능성의 영역에서 현실로 불리오면서 “Creating a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
- * 기간: '18.02.26~03.01 장소: 스페인 바르셀로나, 200여개국, 108,000여명의 관람객, 2,300여개의 업체 참가

□ MWC 2018 주요내용

- “Creating a Better Future”
- MWC 2018을 관통한 화두는 5세대 이동통신(5G)와 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50억명의 모바일 가입자 중 33억명이 모바일 인터넷 접속, 이를 통해 83억개의 연결을 이루는 모바일 생태계는 전세계 GDP의 4.4% 형성



- 5G 이동통신 혁명은 AI, IoT, Big data, VR 등 주요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구현
- 5G의 핵심은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는 것으로, MWC는 이러한 기술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로 구현가능한지를 제시하는 행사

○ MWC 2018의 주제

- 올해 8개의 핵심주제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디지털 소비자, 사회에서의 기술, 콘텐츠와 미디어, 응용AI, 혁신
- 모바일과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에 따른 사회와 소비자의 변화가 큰 주제
- 이러한 흐름의 근간이 되는 5G·사물인터넷·인공지능의 개별기술과 융합기술, 응용서비스도 중요한 주제가 되며, 서비스 제공자의 변화, 콘텐츠와 미디어의 변화, 새로운 스타트업과 혁신 기술도 제시

MWC 2018 주요 테마

Explore content relevant to your interests and build your MWC journey



○ MWC 2018의 주요내용

- **[5G]** 2019년 5G 상용화가 가시화 되면서, 5G 네트워크 구현과 발전 방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5G 진화의 중간단계에서 여러 이동통신사들이 5G와 4G를 연동하는 트렌드를 선보임
- **[스마트기기]** 카메라 성능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초고속 카메라 및 인공지능(AI)과 증강 현실(AR) 기술을 접목하는 등 모바일 카메라 트렌드 형성
- **[콘텐츠]** 동영상과 VR/AR 콘텐츠의 발전이 주요 이슈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의 성장,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제로 레이팅(zero rating) 제도의 활용, VR/AR 콘텐츠의 활성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화가 주요 트렌드
-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로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얻어지면서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커지며,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의 인공지능 경쟁이 계속되고, 주요 업체들과 여러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을 선보임
- **[사물인터넷 (IoT)]** 스마트시티와 산업 IoT(industrial IoT)가 강조되며, 이동통신과 5G를 통한 사물인터넷의 진화와 거대 도시를 연결하는 스마트시티의 발전 방향을 제시
- **[자율주행]** 자율주행 개발진행단계에서 완전무인운전 가능 수준에 자율주행차를 선보임

MWC 2018의 분야별 주요 제품 및 특성

분야	제품 및 특성	비고
5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텔레콤은 완벽한 5G를 주제로 단독 전시관을 꾸려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관리솔루션 탱고 등 앞선 네트워크 기술과 홀로그램, VR 등 5G 서비스 및 양자암호 통신 핵심기술 공개 • KT는 평창에서 적용한 5G 통합제어체계와 5G 시범단말 공개 및 5G 방송중계와 무선VR게임, VR워크스루 등을 공개 • 화웨이는 5G를 전면내 내세워 스마트폰, 태블릿 외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5G 통신망을 이용해 조종이 가능한 탑승용 드론 ‘에어택시’, 포르쉐와 협업한 AI 스마트폰 연동 자율주행차량 등 5G 기술의 접목한 제품 전시 	 <p>SK텔레콤</p>  <p>화웨이 드론 에어택시</p>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풀스크린 디바이스, 카메라 성능과 퀄리티 개선, AI 기능 도입에 집중 • 다른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대규모 시장용 저렴한 디바이스 제작도 눈에 띄는 주요 트렌드 • 삼성 갤럭시 S9 시리즈는 듀얼조리개와 전용메모리가 통합된 이미지 센서를 가져와 카메라를 개선했으며 AR 이모지 기능 등 최고의 커넥티드 모바일기기상 수상 • 노키아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원(One)과 안드로이드 고(Go)가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디자인 면에서 위코의 View 2가 관심을 받음 	 <p>삼성 갤럭시 S9</p>  <p>Wiko View 2</p>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뱅크는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인식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 페퍼 공개 • 일본의 통신사 토코모는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지역의 택시 수요를 짧은 시간 안에 예측하는 솔루션 공개 • 화웨이와 노키아는 5G 장비관리에서 IoT와 AI를 접목시켜 개별 장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고장을 사전에 진단 	 <p>인공지능 로봇 페퍼</p>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퀄컴의 5G 칩을 탑재한 캐딜락의 커넥티드 카 전시 • AT&T와 BMW는 BMW7시리즈 차량에 자율주행기술을 시연 • 벤츠와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엠박스 전시 	 <p>벤츠의 커넥티드카</p>
I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5G 커넥티비티 노드를 선보여 IoT와 센서 기반으로 주차, 조명, 디지털 광고, 환경관리 가능 • 노키아는 도시관리 효율화를 위한 모빌리티 애널리틱스 포 시티를 처음 공개했으며, 도시정보 분석 프로그램인 아바 활용 • 커넥티드 드론 및 센서의 활용으로 농업 및 가축 트래킹에 활용한 스마트 파밍이 신흥테크로 부상 	 <p>스마트파밍 4.0</p>

[참고 1] MWC 2018에 참여하는 국내기업 현황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갤럭시S8 대신 갤럭시탭S3를 공개할 예정 •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IoT 서비스인 스마트씽스로 연결하고 빅스비를 통해 제어하는 모습 전시 • 5G와 관련된 차세대 이동통신 장비와 네트워크 성능향상 솔루션 공개
LG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AI 카메라와 G렌즈 기능을 앞세워 V30S 체험존 전시 • LG전자의 보급형 러인업의 K8, K10과 K10+ 전시 • LG전자의 AI 브랜드 씽큐존을 소규모로 구성해놓고 다양한 가전과 스마트폰을 연동
SK텔레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전시장에 5G 기지국을 설치해 360도 5G 영상통화를 선보임 • SKT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NUGU) 기능이 탑재된 홀로그램 아바타를 보면서 대화하는 미래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홀로박스(HoloBox)공개 • VR기기를 쓰고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공간으로 들어가 다른 참여자들과 동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대화 가능한 Social VR 서비스 선보임 • 국토부와 K-시티에서 자율주행 시연을 성공리에 마친 자율주행차를 전시 • 음성데이터로 전송하는 IoT 블랙박스, 혈당측정기 등 기존 대비 고효율 통신망인 Cat.M1 상용화에 맞춰 출시될 IoT 서비스 공개 • 5G 시대에 보안 솔루션인 양자암호통신을 위한 양자난수생성기 칩과 공공안전솔루션, 단말간 직접통신(D2D)도 선보임
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대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합성해 송출하는 5G 방송중계서비스 시연 • 독자적 무선 VR전송기술인 VR위크스루 기술을 적용해 게임 콘텐츠를 원거리 서버에서 실행하고 가볍게 휴대폰 기반 HMD로 게임 즐길 수 있게 함 • 세계 최초 여러 개 체인을 생성하는 미니체인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등록, 조회, 삭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도 선보임 • 5G 기반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IVI(In-Vehicle Information) 전용 플랫폼 기가 드라이브, 국내 최초 지능형 영상보인 플랫폼 기가아이즈 등도 전시
중소·중견·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장비업체인 에이스테크놀로지는 5G 시대에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용량 다중입출력 안테나 공개 • 다산솔루션스는 무선기지국 데이터를 유선망으로 연결하는 ‘모바일 백홀 솔루션’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SDN) 장비 등 5G 상용망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 전시 • 크루셀텍은 모바일용 보안제품과 함께 위조지문 차단이 가능한 지문인식 스마트 카드와 스마트폰에 꽂아 사용하는 외장형 메디컬 솔루션 모델도 함께 전시 • 바이오인식 솔루션 업체 슈프리마는 차세대 인증 솔루션 인디스플레이용 ‘바이오사인(BioSign)3.0’과 3D 얼굴인식 솔루션 ‘룩사인(LookSign)’을 공개 • 원격지원·제어솔루션업체 알서포트는 자사가 개발하고 일본 NTT토코모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사용중 장애 발생 시 상담사에게 연락만하면 신속히 원격지원을 도와주는 ‘안심원격서포트’ 공개 • 광통신 기술 스타트업 옵텔라는 저전력으로 고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기술 보유하여 SKT와 함께 5G 관련 네트워크 협업 • 쿨클라우드는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해 네트워크를 쪼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개발 • 서큘러스는 이용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고 목소리를 통해 대화가 가능한 소셜 로봇 ‘파이보’를 전시